



連載〔7〕

## 잃어버린 古代都市

### Ⅶ. 햇빛에 말린 벽돌로 만든 都市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수십 만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수렵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農耕牧畜을 기반으로 한 定住生活에 들어간 것은 인류사상 참으로 획기적인 혁명적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란 티그리스江과 유프라테스江에 둘러 싸인 나라를 의미한다.

이 두 강의 풍부한 물량과 土砂에 의해 이루어진 비옥한 沖積土, 거기가 밝은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혜택받은 차연환경이 메소포타미아의 땅에 농경목축 생활을 정착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세계 最古의 도시문명의 탄생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自然資源이 풍부한 메소포타미아에도 한가지만은 혜택받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건축용 石材인 것이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 文明의 직접적인 담당 역할을 하였던 슈메르인이나 셈인은 쉽게 손에 잡히는 粘土

를 이용하여 햇빛에 말린 벽돌이라는 독특한 建築材料를 만들었다.

그러나 바빌론의 도시는 헤로도투스 이후 그 소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된 것은 1850년의 니베베를 발굴한 레어드의 시도가 최초였다. 그 후 오늘날과 같이 바빌론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899년 으로부터 실로 18년간의 긴 세월을 걸쳐 로베루트 코르디와이가 지휘하는 <독일 오리엔트學會>에 의한 조직적인 발굴에 의해서였다.

東洋最大의 도시였던 바빌론도 지금은 水脈을 바꾼 유프라테스의 하상으로 되어 매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부가도네자르 2세 시대에 建造된 궁전의 자취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두께 2미터 이상에 이르는 햇빛에 말린 벽돌로 쌓아 올린 壁體는 비나 風化 혹은 낮과 밤의 심한 온도차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원래의 粘土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다. 바빌론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 한, 언젠가는 진

흙의 구름으로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의 손에 의해 햇빛에 말린 벽돌이 원래의 자연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현실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다. 더불어 마감재의 조각으로서 장식되었던 소성벽돌이 오늘날 촌락의 마을사람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재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바빌론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은 원래 土地를 떠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로마에 있어서의 都市는 전설과 파괴를 몇번이고 되풀이 해 왔다는 사실은 폼페이와 발굴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생대·신석기시대 등 먼 옛날의 穴居居住의 자취 위에 몇십층의 부락이 만들어진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는 진보·발전한다기 보다는 輪廻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心象)